

법진보 '과반+2' 확보...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청신호

무소속 손금주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행보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손 의원의 민주당 입당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에 숨통이 열렸고, 과반수 확보를 위한 민주당의 추후 움직임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무소속 국회의원들의 추가 '민주당행'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사실상 패스트트랙을 성사하기 위해 민주당이 추가로 무소속 국회의원의 영입에 나서거나 연대할 경우 내년 총선 판세에도 커다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황영철·염용수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의원 재적수는 295명으로 떨어졌다. 두 의원은 앞서 지난 달 31일과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적수 감소로 당초 149명(재적 297명 기준)이던 의석 과반수는 148명(재적 295명 기준)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의 의석은 129석으로 1석 늘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허용하면 된다.

과반의석 하락과 자당 의원수 증가로 총 2석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둔 셈이다. 이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정기국회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민주당에 한층 유리한 지평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민주당의 의석에 개혁공조가 가능한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이하 의원 활동 기준), 대안신당(10석)을 합치면 150석이 된다. 과반 '하한선'에서 2석이 남는다. 여기에 민주당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

한국당 2명 의원직 상실 민주당 129석으로 늘어 선거법 이해관계 해소 과제

상 국회의장과, 손혜원 의원과 함께 중립적인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그리고 민중당 김중훈 의원까지 설득한다면 넉넉하지 않더라도 과반의 '안전선'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모든 속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진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정의당과 선거법 개정안의 원안 의결 시 사라지는 호남 지역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평화당·대안신당 등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호남에서는 총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의 지역구가 사라진다. 불밀 협상 과정에서는 현재 선거법 개정안이 설정한 지역구 의석수(225석)를 240~25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민주당은 소수 정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매직 넘버'를 찾는데 최대한 주력하는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에서 배제되는 당이 생길 경우, 패스트트랙 이후의 정국에서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경우의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부터)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칙 총사퇴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으뜸장을 놓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한일 지소미아 입장차만 확인...정경두 "원론 수준 얘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미일 국방장관, 한국 압박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17일 태국에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에서 마일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직접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정보공유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5분(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는 동맹국 간의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정보공유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소미아가 계속 유지될 바라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고노 방위상은 "우리는 아직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폐기에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미국, 한국의 방위 당국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국 간의 방위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최근 지역 내 안보 환경을 보면 과거 갈등과 대립의 대결 구도로 되돌아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협력 상생의 새 시대로 향해 가는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최근에는 인접 우방국인 한일 간에도 역사 정치 경제 문제의 연합협력력을 포함하여 3국 안보협력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철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3국 장관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지소미아와 관련해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은 한국 입장을 설명한 뒤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고 고린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의 한국 정부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현재의 한일 간 협의의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된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22일 자정부로 종료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정계 은퇴 시사에 대해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입장 표명이라는 반응과 함께 당의 자산이 손실된 것이라며 안타까워 하는 의견들이 잇따라 나왔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호남의 미래 주자였던 임 전 실장의 갑작스런 총선 불출마 선언에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 "너무 갑작스럽다...당 자산 손실 안타까워" 충격

임종석 총선 불출마에 당혹

지역정가 "대권주자 퇴진 아쉬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정계 은퇴 시사에 대해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입장 표명이라는 반응과 함께 당의 자산이 손실된 것이라며 안타까워 하는 의견들이 잇따라 나왔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호남의 미래 주자였던 임 전 실장의 갑작스런 총선 불출마 선언에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운동 할 때도 흥겨웠던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더니...라며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다.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동일운동에 전념하고 싶단 취

지라고 들었다"며 "그것도 그것대로 장하고 훌륭한 뜻이고, 마저 들어보고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해식 대변인은 "(임 전 실장의 입장 표명은) 너무 갑작스럽다"며 "전혀 (관련한 의중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당에 상당히 중요한 자원인데 어떻게 보면 손실일 수도 있다"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당)이 만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의 갑작스런 입장 표명의 배경과 관련, 서울 종로 지역구 출마 문제와 연결짓는 시각도 나온다. 임 전 실장이 비서실장직을 내려놓은 뒤 종로로 이사하면서 이곳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당내에서는 현역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재도전 전망이 함께 나오는 상황이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론 내부에서 임 전 실장

에게 종로가 아닌 인근 지역구를 추천하면서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정세균 전 의장이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결정이 그와 관련된 것 아닌가 싶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도 임 전 실장의 갑작스런 총선 불출마 선언에 큰 아쉬움과 함께 향후 행보에 관심을 보였다. 호남의 미래 대권 주자를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다음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 등으로 임명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의 이계호 의원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그렇지 않아도 당내에 호남 출신이 많지 않은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가을&겨울 해외여행지 추천

HNT 하나투어

무/안/공/항/에서 '우리가족 해외여행' 편하게 떠나요!

동남아

겨울 특별가

캄보디아

savepack ARPF01_1
캄보디아양코르왓 4일, 5일
599,000원~
수 3박4일 토 3박5일 (20.1.11~20.2.8)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신년의 신비 #일코르왓 유적지

겨울 특별가

나트랑

savepack AVPF21_D
나트랑/달랏 4일, 5일, 6일
950,000원~
수 3박4일 토 3박5일 (19.12.29~20.2.22)
*1월18일, 23일, 27일, 28일 1일 선택일임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시내6성급호텔 #노쇼당 #포밍투어

방콕

하나팩 APPF01_1
방콕·파타야 5일, 6일
599,000원~
수목 3박5일, 토일 4박5일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8곳 9곳 #온도숙호텔

코타키나발루

savepack AMPF02_1
코타키나발루 5일, 6일
599,900원~
수목 3박5일 일 4박5일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3성급호텔 #모텔랜드투어

남태평양/중국/대만

신규취항

괌

savepack PGPF0A_A
괌 4일 홀리데이인호텔
896,400원~
매일출발 3박5일 (19.12.24~20.3.7)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남태평양 패러다이스 #비사미아

[온선]신상품

대만

하나팩 ATPF01_2
[온선]대만·지우펀·스펀 4일
688,000원~
주 4박5일 *일일출발 상이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대만 온천여행 #식도락

상해/장가계

하나팩 CCPF02
상해·장가계 4일, 5일
99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천하제일강산 #5성급호텔

겨울 특별가

광오스

하나팩 ALPF15_A
라오스 5일, 6일
1,050,000원~
수 3박5일 금 4박6일 (20.2.4~20.2.25)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관공제 #카약킹

다낭

savepack AVPF13_O
다낭·호이안 4일
477,000원~
매일출발 3박4일 *제외 날짜 있음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관공제 휴양동 동서

체부

하나팩 APPF01_A
체부 5일 일금리조트
544,000원~
주 2~4박 *일일출발 상이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호핑투어 #천안마사지

보라카이

savepack APPF01_J
보라카이 4일, 5일 일금리조트
544,000원~
주 3박4일 일 4박5일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레일링보트 #모텔마사지

신규취항

하이난

savepack CIPF21_1
하이난 5일, 6일 특급호텔
440,000원~
수 3박4일 일 4박5일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경비 \$50~ 선택경비 있음
#특급호텔 #노쇼당+1일 자유

상해

하나팩 CCPF01
상해·주자각 4일, 5일
32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항공제 #상해서커스

상해/황산

하나팩 CCPF01_1
상해·황산 4일, 5일
54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비행기>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온공제 #리조트 #시외유람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정보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여행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지] 도착비지는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지요금은 상품가에 포함됩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메니점]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여행목적지 여행경로]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로만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1993-000006호 (충무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성급 이상 2인1실/교통편 항공/버스/택시/기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취항/불편사항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당일 보충보통 22억 1천만원 기입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